

시온 주보

제2577호

2025년 9월 21일(다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장발(張勃, 1901~2001)

1928~29년

(시복식 직후 시복을 기념하여 제작)

캔버스에 유채 80x43cm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서울 절두산순교성지



입당송 I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
하네.

제1독서 I 지혜 3,1-9

화답송 I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

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
리라. ◎

제2독서 I 로마 8,31-39

복음환송 I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I 루카 9,23-26

영성체송 I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
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인만희 마누엘 신부 | 글라렛 선교 수도회

순교에 이르는 사랑

순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치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신해박해(1791년)를 시작으로 병인박해(1866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땅에서 일만여 명이 순교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기리기 위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84년 한국을 방문하시어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 정하상 바오로를 포함한 103위 순교자를 시성하셨습니다. 이어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윤지충 바오로를 포함한 124위 순교자를 복자품에 올리셨습니다.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복음적 요청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여기서 “누구든지”란 열두 제자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는 자기 비움의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 비움의 삶을 살도록 이끌며 양성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희생과 죽음을 껴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

는 희망의 순례자적 삶입니다. 1독서의 말씀처럼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지혜 3,4) 있습니다. 그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만약 제자가 매일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장 잘 먹고 잘살기 위한 철학을 말하고, 소비문화를 부추깁니다. 많은 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때,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부활의 삶, 사회와 가정에 짙은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방향 잡게 됩니다.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삶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과 죽음의 체험 앞에서 작은 순교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자아 포기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로마 8,37)



네가 영원히 탁덕이로다 (탁덕: 신부를 지칭하는 옛말)

성화 해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복자품 기념 성화입니다. 장발 화백의 김대건 신부님 그림 중에서 유일한 전신 화이며 전통적인 성인화 양식을 따랐습니다.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가슴에 성경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치에는 신부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위하야 무궁세가 곳 시작하리니 그디들도 사후진복을 누리려 하거든 성교를 봉행하라”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행복하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버리겠다는 약속



이수진 유스티나 | JTBC 뉴스룸 앵커

저는 아나운서로 입사했지만 기자 교육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되는 신입 기자 교육 중, 국과수에서 시신 부검 과정을 참관하는 수업도 함께했습니다(국과수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시신이 남긴 증거를 기자들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준비된 수업입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부패한 시신들이 있었고, 법의관들은 조심스레 죽음의 이유를 규명해 나갔습니다. “선배들도 다 받은 수업이야.”, “기자는 이런 거에 쫓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왔기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그날의 장면들은 제게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과 냄새가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증상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된 계기는 고(故) 정진석 추기경님의 선종이었습니다. 당시 기자로 전직해 문화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정진석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선종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추기경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에 따라 돌아가시자마자 각막을 기증하셨고, 안(眼)질환 연구에 쓰이게 하셨습니다. 재산은 명동밥집 등에 기부 하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이 품위 있고, 숭고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장기기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과정도 부검과 비슷하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기를 기증받아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지인을 면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잘 알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가 일견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을 뵈고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 만약 좋은 마

음으로 장기기증을 했는데, 기증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험하면 어떡하죠? 기증을 하려는 저로서는 너무 걱정되는데요.” 그러자 신부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스티나, 죽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모든 우려와 걱정이, 내 것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명동성당 지하에서 장기기증 서약에 사인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도 장기기증 표시가 새겨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과수에서의 트라우마, 사건사고를 취재하며 생겼던 좋지 않은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취재하면서 생긴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약속’을 한 것뿐인데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하신 정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저는 버리기로 약속하고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한컷 묵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교회 안에 '오늘' 살아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1984년, 103위 한국 순교성인 시성식 강론 중)



김현진 글라라 | 작가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❶ 교회의 축복 예식,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복을 기원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돈도 잘 벌게 해주시기를 청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바람을 모아 하느님께 청하고, 교회는 제정된 축복 예식을 통해 하느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내가 청하니 꼭 주셔야만 하는 복’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교회의 축복 예식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응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갖 복의 원천과 기원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 이십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좋게 창조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때가 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 기도를 바치셨고, 마침내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 나라의 복된 이들 가운데 들게 하셨습니다.

결국 복을 빈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느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향하며, 마침내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교회는 이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 축복 예식을 마련했고, 축복식의 거행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 백성의 영적 이익을 증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축복 예식> 총지침 12항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때에 따라 교회는 인간 활동이나 전례 생활이나 신심에 관계되는 물건과 장소를 축복하면서, 언제나 그



2027 서울 WYD 지역 조직위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님께서 서울 WYD 차량을 축복하시는 모습. (사진 제공: 가톨릭평화신문)

물건을 쓰고 그 장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온갖 선한 것을 바라시고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이야말로 하느님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인간은 피조물을 사용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충실히 섬긴다는 사실을 축복 예식으로 고백한다.”

가정·병자·선교사·여행자·순례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 예식’, 집·사무실·건물·논밭·동물·생업 기기 등 ‘신지들의 다양한 생활과 건물에 관한 축복 예식’, 세례대·독서대·감실·십자가의 길 등 ‘전례와 신심을 위한 성당 기물 축복 예식’, 목주·스카폴라·성물 등 ‘그리스도인의 신심 증진을 위한 물건 축복 예식’, 그 밖의 ‘여러 가지 축복 예식’ 등 교회는 하느님 창조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선익을 위해, 우리의 환경과 일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에페 1,3)

광야로 돌아가는 이유 (호세아서)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기원전 722년경)를 배경으로 하며, 하느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에 비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남편 혹은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아내이며 신부’로 묘사됩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호세 2,21)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그들이 하느님을 멀리하고 바알 등을 향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으로 보았고, 따라서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은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아내로 묘사됩니다. “그 여자는 바알들에게 분향하고 …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호세 2,15) 하느님께서는 불충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내인 북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세아도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로 루하마’(לֹא רָחֵם)와 ‘로 암미’(לֹא אִמָּה)라고 짓게 하였고, 그 뜻은 글자 그대로 각각 ‘자비가 없다.’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며, 그들이 더 이상 당신 백성이 아니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엄하게 꾸짖으시지만, 멸망이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마음은 다음 구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다정히 말하리라.”(호세 2,16)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장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탈출 후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불평하면서 하느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탈출 17,1-7 참조)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하느님 대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탈출 32,1-6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몇 번이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표현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하느님 앞에서 나약해지거나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을 향한 더욱 굳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자람입니다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살레시오청소년센터)

가끔 주변 본당에 주일 미사를 도우러 다녀오면 교우분들께서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어느 날에도 수도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신부님, 제 아들이 학교에서 사건을 터트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화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그 친구가 부모인 저희 욕을 했는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하자 화가 난 나머지 주변에 있던 칼을 들고 그 친구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아이가 칼을 들었다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바라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욕하는 말을 듣고, 부모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지만, 누군가 부모님을 욕한다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를 지켜줘서!”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가 부모를 지키려 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든 행동은 잘못된 거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하고 선생님이나 어른들께 도움을 청하면 좋겠어.” 이처럼 잘못된 방법은 바로잡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엄마는 네가 엄마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훈육은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어 보면 더욱 분명해 집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 고 우르술라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천주를 공경해 받들려는 까닭’으로 아들을 타국으로 유학 보내며 긍정적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울지 마라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 여섯 번째 단계(18세~성년 초기)의 과업은 ‘친밀감 대 고립’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주로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만, 성인 초기에 접어들면서 타인에게 관심이 확대되고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앞선 단계의 과업이었던 ‘정체감’을 자신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우정 등을 통해 타인 안에서 ‘공유된 정체감’으로 이루는 시기죠. 이 시기에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고립감을 쉽게 표현하면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수선화에게》, 정호승)라는 시구처럼, 외로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산다 해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앞선 단계들의 과업이 모두 중요하지만, 외로움(고립) 그리고 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밀감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잘못해도 너그러이 이해받을 수 있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와 달리, 이제는 스스로 삶을 영위해 가는 성인기의 과업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점점 확대되는 오늘날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사랑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우정 안에서 경험하는 친밀함이 ‘나’라는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라는 정체성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독신 생활을 하는 사제들에게도 친밀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사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 태도’로 ‘하느님과 친밀함’, ‘주교와의 친밀함’, ‘사제들 사이의 친밀함’, ‘하느님 백성과의 친밀함’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교황청 주교부, “사제직의 기초 신학을 위하여” 심포지엄, 2022년)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근본은 바로 하느님과 친밀함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친밀감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경계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이의 친밀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친밀감을 얻는 관계를 많이 맺는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우 깊은 친밀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한 친구와 누리는 깊은 친밀감도 있지만, 이웃이나 동료, 물건을 사러 들린 상점 주인과 관계에서도 소소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외로워서 울기도 하지만,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고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미사 시작 예식 인사)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아리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제89회 정기연주회(11월초, 살리에리 레퀴엠 및 작곡가 별 미세레레)를 함께하실 분 / 문의: 010-5397-7387
연습: 매주(토) 15시, 명동성당 영성센터
대상: 55세 이하 성음악 합창 경력자(파트별 약간명)

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9월 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제12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 9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2) 9월 영화 치유 미사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미사/사진 접수·회비 없음
때, 곳: 9월 24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미사

성결품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9월 26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9월 26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마태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미사·축하행사

미사 집전: 염수정 추기경
축하행사: 가수, 생활가수 / 기념품 증정: 당일 참가자
때, 곳: 10월 15일(수) 14시~17시, 코스트홀(명동)
2층 문화관 / 문의: 02)723-4706

웅기장학회 월례 미사

때, 곳: 9월 2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주현 신부, 박신연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진철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
해리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
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가톨릭여성연합회 9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김연범 신부(사목국장) / 주제: 시노드 교회
때: 9월 23일(화) 10시30분 / 문의: 02)778-7543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홈페이지(yonaresort.com) 참조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 문의: 041)934-7758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 31회 정기연주회

때, 곳: 9월 26일(금) 오후 8시, 서초동성당
연주곡: 구노의 '십자가 위 주님의 일곱 말씀'을
비롯해 십자가를 주제로 한 다성음악 등
지휘: 신기호 신부 / 오르간: 최신영
무료 관람 / 문의: 010-9464-0680

바오로딸 문화콘서트 '희망과 용기의 팡파르, 금관악기'

내용: 해설과 함께 즐기는 금관 10중주의 화려
한 선율 / 출연: 성재창, SNU Brass Society
때, 곳: 10월 15일(수) 19시30분,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 접수: 바오로딸 인터넷서
점 사이트(무료, 선착순 사전 접수)
문의: 02)944-0829 (업무 시간), 010-7286-7724 (문자)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심리상담치료 국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9월 30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작원모집

신대방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우 0706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
로 11길 14 신대방동성당 사무실)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825-2314

목동성당 방호원(관리장) 모집 / 문의: 02)2643-2212, 3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근면성실하신 분
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
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예: 소방안전관리자)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011, 양천구 목동
서로 271 목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jskim0724@seoul.
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 (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근면성실한 분으로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
적인 업무(순전면·1종보통·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
증 사본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9월 26일(금)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785, 서울
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쑥고개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
(uld@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873-2333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본사양식) 온라인 접수
접수: 본사 플랫폼(catholicbookplus.kr)-회사소개-
홈페이지(catholicbooks.kr)-채용정보 / 근무조건·세
부 사항은 부문별 상이하니 채용정보 반드시 확인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전문 편집
경영관리국	재무 회계, 인사기획 및 성과 관리
영업국	영업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곤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월 첫째주(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해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상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상담 가능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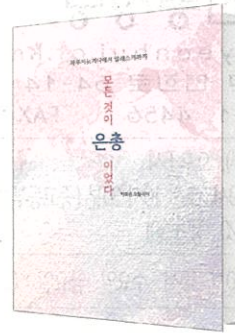


신간

6단계 신약2: 요한 복음서~요한 묵시록 성경의 길을 따른 어린이 여정

생활성서사지음
생활성서사 | 128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성경의 길을 따른 어린이 여정》은 성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일 학교 어린이 교재이다 이번 '신약2: 요한 복음서~요한 묵시록' 편을 끝으로, 총 6단계의 시리즈가 완간되었다. 요한 복음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 요한 묵시록까지 신약 전반의 내용을 담아 어린이들이 성경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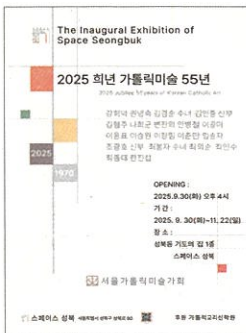


신간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

박보경 지음
기쁜소식 | 224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외방선교회는 한국 천주교회가 세운 최초의 해외 선교 전문 공동체다. 박보경 작가는 2005년부터 후원회에서 활동하며 파푸아뉴기니, 모잠비크, 캄보디아, 멕시코 등 다양한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 신부님들의 사목 현장을 글로 담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착한 목자로 살아가는 신부님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시

2025년 회년 가톨릭미술 55년

축복식 및 개관행사: 9월 30일(화) 오후 4시
때, 곳: 9월 30일(화)~11월 22일(토), 스페이스
성북(Space Seongsbuk) '성북동 기도의 집'(1층)
관람시간: (수~주일) 11시~18시(월·화 휴관)
무료 전시 / 문의: 010-8260-6902

1970년 창립된 서울가톨릭미술가회가 전용 갤러리를 성북동에 개관한다. 개관 기념전 '2025년 회년 가톨릭 미술 55년'에는 한국 성미술계의 대가인 최중태, 이동표, 최봉자 수녀를 비롯하여 세계적 명성의 김인중, 신부 등 원로작가 20명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스페이스 성북에서는 지속적인 성미술 전시, 강연,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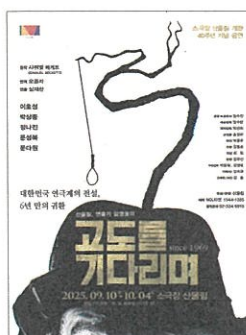


영화

사제로부터 온 편지

유튜브 검색창에 '사제로부터 온 편지' 검색
문의: 031)813-3005 노란문영화연구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극장 개봉과 함께 KBS2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사제로부터 온 편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조선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와서 최초의 사제가 탄생하기까지 과정과 '25년 25일' 동안의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담고 있다.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김대건 신부님의 신앙과 정신이 담겨진 의미있는 작품이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때: 10월 4일(토)까지 평일 19시30분 · 주말
및 공휴일 15시(화요일 쉼)
곳: 소극장 산울림
입장권: 전석 6만원 / 문의: 02)334-5915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사뮈엘 베케트의 대표작으로, 부조리극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약속의 시간과 장소, 목적, 대상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해'라는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주문처럼 울린다. 이번 공연은 끝없는 기다림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각자가 기다리는 '고도'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연극

길 위에서

때: 10월 24일(금)~26일(주일)
곳: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공연시간: 10월 24일 19시, 10월 25일 15시 · 19시, 10월 26일 15시 · 19시
전석 무료 / 문의: 010-2990-7147

"그는 순교의 길을 걸었고, 우리는 그 길을 꽃길로 기억합니다." 연극 <길 위에서>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창작극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조선의 사제,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무대에 담아내며, 그가 걸었던 고단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 오늘의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감동의 시간을 선사한다.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10월 6일 (월)	오전 7시
한가위	오전 9시
	오전 11시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는 10월 2일(목)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는 미사 후에 바칩니다.

● 한가위 연휴 및 공휴일 미사

10월 3일 (금)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7일 (화)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8일 (수)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9일 (목)	오전 6시, 오전 10시

● 10월 3일 및 7일~9일 사무실 휴무입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9월 23일(화) 오전 10시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미사 후 201호에서 화합이 있습니다.

※ 명동성당 성지순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16일 1시에 「서대문우체국 중앙차선 정류장」에서 모여서 갑니다.

● 성모신심미사

· 일시 : 10월 4일(토) 오전 10시

● 연령회 미사

· 일시 : 10월 1일(수) 오전 10시

※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9월 26일(금) 오전 10시 출발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울드레아

· 일시 : 9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연성회 야외행사

· 일시 : 10월 11일(토) / 성당에서 10시 출발

· 장소 : 강화도 갑곶성지

· 문의 : 김무영 요셉 (010-3891-4300)

● 여성구반장 화합

· 일시 : 10월 12일(주일) 12시

· 장소 : 소성전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오라떼(교중미사성가대) 단원 모집

· 대상 : 영세 교우 및 예비신자

· 문의 : 하아친타 단장 (010-6788-1588)



● 청년배움터 바오로 72기 새내기 모집

·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 모집 : ~ 10월 11일(토)

· 여는마당 : 9월 14일 오후 3시

· 문의 : 큰일꾼 루치오 (010-3012-5592)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 기간 : 8월 5일(화) ~ 11월 13일(목)

·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 여성총구역 송편 판매

· 기간 : 9월 27일(토) 오후 6시미사

9월 28일(주일) 오전 7시, 9시, 11시미사

· 가격 : 13,000원/1Kg (동부, 깨, 서리대)

·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어르신일자리사업단에서 손수 빚으신 송편입니다.

● 오늘은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헌미헌금봉헌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9. 1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9	744 (37.0%)	695 (34.6%)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영례 아녜스 상가이십만원

● 감사헌금 (9월 8일 ~ 9월 14일)

박명숙	오만원	곽선모	오천원
한인경	이십만원	이정훈	오만원
김희태	오만원	김희진	오만원
전성호	오만원	이지원	이만원
익명	일십오만원	익명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성 십자가 헌양)

교 무 금	7,910,000원
주일헌금	6,008,200원

입당	287	봉헌	342,340,219	성체	179,180,182	파견	289
----	-----	----	-------------	----	-------------	----	-----



눈물로 씨 뿌려 댄 자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 라